

實在解釋과 哲學의 立場

「現代의 思惟와 人間理念」의 續稿(三)

金基錫

우리들은 現實을 먼저 存在로서의 現實로 생각하고 거기에 對하여 事實로서의 現實이란 것을 구별한다. 이제 이 存在로서의 現實을 實在, 事實로서의 現實을 生成이라고 부르면 實在은 現實의 主語面生成은 現實의 述語面가튼 것이된다.

이 現實로서의 實在또는 生成은

時間 性的의 世界의 意味를 가진다. 이것을 우리들은 現實의 運動性이라고 부르려고 한다. 現實的인 實在, 現實的인 生成은 언제나 自己를 다른 한 개의 實在도는 生成에 대하여 限定하고 主張하는 性格을 가진다. 이것을 우리들은 現實의 聯關性이라고 부르려고 한다.

現實은 본대 時間的=限定的 現實, 도는 運動的=聯關的 現實이된다. 時間을 버서나는 大□한 現實이란것이 있을 것인가. 자기를 한 개의 存在는 또 事實로 限定하지안는 抽象的 現實이란것이 있을 것인가. 眞實한 現實은 언제나 그 根源的 規定으로서의 運動性, 聯關性에 있어서 理解, 體驗, 表現되어야한다.

辨證 法은 現實을 그 具體的 運動에 있어서 생각하기는 한다. 이것은 生成의 論理가 辨證法에게 가르친 한개 尊貴한 見解이다. 辨證法은 現實을 그 全體的聯關에 있어서 이야기하기는 한다. 이것도 生成의 論理가 辨證法에게 가르친 한개 尊貴한 見解다.

그러나 辨證은 어느 사이에인지 이 時間的 運動을 단순한 發展으로 이 限定的 聯關을 조그만 對立으로 주려버렸다. 이리하여 辨證法은 辨證法的 世界란것을 가르치면서 마침내 그것을 예워싸는 眞實한 意味의 現實의 世界를 가르치지 못한다.

辨證法이 對立에 있어서의 統一을 말하면서 한편팔로

目的 論을 당기어 世界의 汎神論的 解釋을 숨어서 說明하는양 主張하고있

음을 보라. 辨證法은 生成의 構造聯關이라고하여 卽 自에서 對自 對自에서卽 自=對自에로의 圓環運動을 말한다. 觀念辨證法은 眞實한實在로 精神이란것을 想定하여 世界를 이 精神의 自覺過程으로 解釋하고 現實主義는 根源的 實體로 物質이란것을 固執하여 現實을 이 物質의 發展形態에 잇어서 說明한다.